

페퍼스 어르헝 오늘 귀화시험...지역 배구계도 응원

지난 2월 한차례 낙방...애국가 부르기·한국 역사 등 면접시험 만만찮아 시험 합격해야 프로 데뷔...페퍼스, 관련 전문가 불러 공부 돕기 등 지원 부동의 미들 블로커 활약 기대 속 배구계 국가대표 발탁 특별 귀화 검토

광주 AI페퍼스가 신인 드래프트에서 우선 지명 한 몽골 출신 체원탑당 어르헝(18·목포여상)에게 다시 한번 배구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지켜보듯 조심스럽다.

AI페퍼스는 최근 2022-2023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어르헝을 우선 지명했다. 귀화를 추진 중인 선수로는 중국 지린성 연길 출신의 재중동포 이영애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았다. 이는 점에서 더 주목받았다.

어르헝이 우리나라 국적을 획득하면 앞으로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에서 부동의 미들 블로커로 활약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는다.

키 194.5cm인 어르헝은 제자리에서 양쪽 손을 들면 한뼘 가량 배구네트 위로 올라올 정도로 체격이 좋다.

남여야할 관문은 있다. KOVO 규약에 따르면 귀화 선수로서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 귀화 신청 후 귀화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전 구단의 동의로 귀화 절차 중인 선수

는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 어르헝은 후자의 사례에 해당한다. 더 큰 난관은 2차 면접시험이다.

어르헝은 미성년자로서 한국 부모에 입양됐기 때문에 1차 관문인 귀화 필기시험은 면제 받았다. KGC인삼공사 주전센터 염혜선(31·목포여상 출신)이 부모를 설득하고 입양해 염혜선과 어르헝은 '의자매'가 됐다. 비시즌 때마다 모교를 방문해 후배를 응원하던 염혜선에게 목포여상 정진 감독이 권유한 게 인연의 시작이다.

어르헝은 16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 면접 시험을 치른다. 이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페퍼스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설 수 있다.

귀화면접 시험은 만만치 않다고 한다. 애국가 부르기, 한국 세시풍속, 역사·문화 등 거의 전영역에 걸쳐 20문항이 출제된다.

60점을 따라 합격할 수 있는 데 지난 2월 시험에서 한 차례 낙방했다. 당시 운동을 마치고 매일 밤 한국사 공부를 위해 교사들까지 도와주어도 어렵게 떨어졌다.

AI페퍼스는 어르헝의 귀화시험을 돕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불러 공부를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형실 감독은 "아무리 좋은 선수를 뽑아놓아도 귀화시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출전할 수 없다. 실전 경험을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데 걱정"이라며 "각계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귀화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배구계에서는 어르헝을 국가대표로 발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에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릴까 해마다.

2004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난 어르헝은 2019년 한국에 왔다. 당시 어르헝의 입학을 약속했던 우리나라 학교에서 차질이 빚어져 '미야'가 될 뻔 했다.

목포여상 정진 감독은 어르헝의 플레이를 담은 동영상 보고 두 말 않고 목포여상에 입학시키고 조언했다.

몽골 스포츠클럽에서 2년 동안 배구공을 만졌고 본격적으로 배구를 배우고 기량을 키운 것은 목포여상 3년이 전부터.

정진 감독은 "배구를 늦게 배운 탓에 나쁜 습관이 없다. 가르쳐주면 스피드처럼 빨아들이며 놀랍게 성장했다"면서 "어르헝이 코트에서 페퍼스는 물론 대한민국을 빛낼 스타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목포여상 시절의 어르헝.

<목포여상 제공>

김연경 다음달 25일 V리그 복귀전...상대는 AI페퍼스



지난달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A조 조별리그 경기에서 득점 후 기뻐하는 김연경. /연합뉴스

KOVO 2022-2023시즌 일정 발표 AI페퍼스 10월 28일 광주 홈경기

'배구 여제' 김연경(34·흥국생명)이 10월 25일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V리그 복귀전을 치른다. AI페퍼스는 10월 28일 현대건설과 광주서 시즌 첫 홈경기를 갖는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0월 22일부터 6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2022-2023시즌 V리그 일정을 15일 발표했다.

여자부 개막전은 10월 22일 오후 4시 수원에서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 현대건설과 2위 한국도로공사의 맞대결로 치러진다.

두 팀은 지난달 16일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조별예선에서 만났고, 한국도로공사가 현대건설에 세트 스코어 3-1로 승리했다.

1년 만에 V리그 코트로 돌아온 김연경의 소속 팀 흥국생명의 첫 경기는 10월 25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다.

김연경의 복귀전 상대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하위 팀이 페퍼저축은행이다.

남자부 개막전은 10월 22일 오후 2시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의 경기로 치러진다. 지난해 통합 우승을 이룬 '다덴팀 챔피언' 대한항공과 준우승팀 KB손해보험은 지난 4월 9일 2021-2022시즌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 3차전 후 6개월여 만에 맞대결을 펼친다.

두 팀은 지난달 열렸던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에선 다른 조에 배치되면서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남녀부 정규리그는 각각 7개 팀이 풀리그로 6라운드를 치르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된다.

4라운드를 마친 뒤 2023년 1월 29일에는 올스타전이 예정됐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포스트 시즌은 2023년 3월 21일부터 치러지며 3전2승제의 플레이오프와 7전4승제의 챔피언결정전을 통해 우승팀이 가려진다. 다만 3위와 4위의 승점 격차가 3점 이하일 경우엔 단판으로 치러지는 준플레이오프가 열린다. /연합뉴스

피겨 유영, 시즌 첫 국제대회 쇼트 1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 유영(수리고)이 2022-2023시즌 처음 출전한 국제 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에 오르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유영은 1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레이크 플래스이드에서 열린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쉐린저 시리즈 'US 인터내셔널 클래식'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2.21점, 예술점수(PCS) 30.98점을 더해 총점 63.19점을 받았다.

자신의 쇼트 최고점인 78.22점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날 연기를 펼친 13명 중 1위에 올랐다. 2위는 일본 가와베 마나(62.68점), 3위는 미국의 오드리 신(61.16점)이 차지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6위에 오른 유영은 새 시즌 ISU 시니어 그랑프리 출전에 앞서 이번 대회에서 감각을 점검한다.

그는 10월 28~30일 캐나다 미시소거에서 열리는 2차 대회 스케이트 캐나다 인터내셔널과 11월 11~13일 영국 셰필드에서 진행되는 4차 대회 MK 존 윌슨 트로피에 출전할 예정이다.

아스트르 피아졸라의 탱고 오토노 포르테노에 맞춰 새 쇼트프로그램을 준비한 유영은 첫 점프 과제에서 트리플 악셀 대신 더블 악셀을 선택, 깔끔하게 소화했다.

유영은 가산점 10%가 붙는 후반부 점프에서 트리플 플립을 수행하다 어텐션(에지 사용주의) 판정을 받기도 했으나 레이백 스핀(레벨 4)과 스텝 시퀀스(레벨 3)는 안정적으로 마무리했다.

합계 출전한 김예림(단국대)은 기술점수(TES) 27.60점, 예술점수(PCS) 30.72점, 총점 58.32점으로 5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전남·서울체육회 3년만에 스포츠 교류행사

16~18일 서울 시민체육대회 초청 받아 생활체육 친선경기

전남도체육회와 서울체육회가 3년 만에 스포츠 교류행사로 우정을 나눈다.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2 서울 시민체육대회에 초청받아 '전남-서울 생활체육 우호교류'를 행사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 우호교류단은 최기동 전남체육회 회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국학기공, 수영, 농구, 족구 등 4개 종목 총 6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잠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2022 서울 시민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각 종목별로 서울

생활체육 동호인과 친선경기를 갖는다.

최기동 회장직무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교류전에서 다시 한 번 전남-서울의 돈독한 우정을 다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스포츠교류를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뿐만 아니라 선진형 생활체육문화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서울 교류는 2005년 처음 시작됐다. 내년에는 전남생활체육대축전에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소프트테니스 협회 상생 협력 협약



광주·전남소프트테니스 협회가 상생 협력에 나섰다.

광주시체육회는 '광주-전남 소프트테니스 발전 상생 협력 협약식' 사진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상동 시체육회장, 최기동 전남도체육회 회장 직무대행, 김용기 광주소프트테니스회장, 김태

성 전남도소프트테니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협회는 소프트테니스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윈윈 방안을 협의했다.

협회 운영, 소프트테니스 기술 및 노하우 교환, 인적 자원 교류도 약속했다. 공동행사와 대회 추진 시 종목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공조2: 인터내셔널
- 2관 공조2: 인터내셔널
- 3관 드래곤볼 슈퍼: 슈퍼 히어로, 9명의 변역가
- 4관 육사오(6/45)
- 5관 공조2: 인터내셔널
- 6관 공조2: 인터내셔널
- 9관 공조2: 인터내셔널, 극장판 엄마 까투리: 도시로 간 까투리 가족
- 7관 씨네케를 오 마이 고스트, 한산: 용의 출현
- 8관 씨네케를 헌트, 블랙폰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 II 2인 가극 아파트
일시 : 2022. 9. 19.(월) 19:3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235

광주시립합창단 제190회 정기연주회 가을저편
일시 : 2022. 10. 12.(수) 19:30
장소 : 빛고을시민회관
문의 : 062-613-8245